

부록 B

위계 중심 모델을 뒷받침하는 신념들의 요약

도표: 가운데에 "복종, 권위, 머리"라고 적힌 원이 있습니다. 그 둘레에 아홉 개의 진술이 있고, 각 진술에서 화살표가 원을 향해 **안쪽으로** 향합니다(위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 창조 질서의 위계
- 창세기 3:16을 규정/명령으로 이해함
- 이름 짓기를 통한 권위
- diakonos는 남자에게만 해당됨
- 하와가 속았으므로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 됨
- 머리 됨은 권위를 가진다는 뜻임
- 디모데전서 2:11-12 – 조용함
- 갈라디아서 3:28은 영적인 평등만을 뜻함
- 여자는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됨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것처럼 남자에게 복종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주의자들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열등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면서도 다른 과제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과제가 성별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머리"가 권위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권위)이시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권위)이므로, 여자는 복종해야 하고 남자에 대해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설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전통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제합니다.

용어	의미
‘ezer k ^e nägdo	대등한 돕는 배필이 "종속된"을 뜻함
kephale	머리가 "권위"를 뜻함
authentein	"권위"로 번역됨
sigao	"말해서는 안 된다"를 뜻함
hupotasso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뜻하며, 교회에서는 "남자들에 대한 여자들의 복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핵심 본문으로 제시되는 것:

- 에베소서 5:22 (복종)
- 디모데전서 2:12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 에베소서 5:23과 고린도전서 11:3 (머리)

(갈라디아서 3:28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해석됩니다. 칭의 교리의 중요한 진술로 보지만, 삶의 실제에는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은사 중심 모델을 뒷받침하는 신념들의 요약

도표: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3:28”이라고 적힌 원이 있습니다. 그 원에서 열한 개의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다음 진술들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위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 요엘 2:28-29 –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언함
- 고린도전서 12:1-31 – 은사는 성별에 매여 있지 않음
- 고린도전서 15:22 – 아담이 죄를 지었음
- 로마서 16:1 – 뵈뵈는 **diakonos**임
- 디모데전서 2:11 – 여자는 배워야 함; 문맥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문제임
- 고린도전서 14장 – **sigao**는 예배에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것임
- 베드로전서 3:1-7 – 피차 복종, 서로 섬김, 서로 사랑,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 종교를 바꿀 자유
- 고린도전서 11장 – 머리는 상호 의존을 가리킴; 문화적 차이와 성별의 차이는 흐려져서는 안 됨; 문맥은 권위가 아니라 근원(기원)을 가리킴
- 에베소서 5:21 – 피차 복종
- 빌립보서 4:2-3 – 순두게와 유오디아는 동역자임
- 고린도전서 7:4 – 서로에 대한 소유권과 서로에 대한 권위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성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본질은 피차 복종과 서로에 대한 책임에 있습니다.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은사로 서로 세워 주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제합니다.

용어	의미
‘ezer kⁿägdo	대등한 돕는 배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서로에게 알맞은”을 뜻함
kephale	머리가 “근원”을 뜻함
authentain	드물게 쓰이며 지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됨
sigao	주의 깊게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용히 있는 것을 뜻함
hypotasso	자발적으로 자리를 잡고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을 뜻하며, 피차 복종이라는 맥락에서 쓰임

핵심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3:28이 제시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 정체성을 날마다 살아 내는 일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영원한 실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